

IEA의 石油製品 수입자유화

中 東산유국들이 대규모 정유공장의 완공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휘발유, 등유 등 石油製品의 수출활동에 나섬에 따라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세계석유산업은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IEA(國際에너지機構)¹⁾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파리에서 21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閣僚理事會를 열고 석유제품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石油製品輸入을 자유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石油製品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日本이 美國과 EC의 시장개방압력에 굴복함으로써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저렴한 產油國產 석유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의 충격을 시장원리에 따라 각국에 분산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세계 石油製品交易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예상된다.

한편, 中東산유국의 석유제품 대량 수출과 그로 인한 제품가격의 하락, 石油製品貿易의 자유화 추세 등 세계석유산업을 둘러싸고 새로운 여건이 형성되어감에 따라 歐美각국의 기업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영합리화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中東산유국들이 工業化政策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건설을 추진해온 정유공장의 완공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石油製品의 본격적인 수출활동에 나섰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사우디는 內需用이 아닌 수출용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정유공장의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그 첫번째가 美國系 메이저인 모빌(Mobil)과 페트로민(Petromin)

〈表-1〉 OPEC 및 GCC국가의 石油製品 수출전망(1987/88)

(單位:千B/D)

	石油製品生産	國 內 需 要	輸出可能量
바 레 인	225	16	209
쿠 웨 이 트	690	96	595
오 만	45	29	20
카 타 르	55	16	41
사우디아라비아	1,655	614	1,040
U A E	160	125	35
G C C 計	2,830	895	1,940
이 란 ¹⁾	975	740	0~235
이 라 크 ¹⁾	385	430	0
小 計	1,360	1,170	0~235
알 제 리	390	130	260
에 카 도 르	75	127	-
가 봉	15	44	-
인 도 네 시 아	810	550	260
리 비 아	315	146	170
나 이지 리 아	230	221	9
베 네 수 엘 라	1,220	420	800
小 計	3,055	1,638	1,490
O P E C 計	6,975	3,660	3,200-3,435
總 計	7,245	3,703	3,430-3,665

註: 1) 이란·이라크戰爭으로 불확실.

〈資料〉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pec and the World Refining Crisis, May 1984.

이 합작으로 건설한 얀부(Yanbu) 精油工場으로, 紅海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제능력은 하루 25만 배럴이다. 두번째는 셸(Shell)과 페트로민이 합

작한 Jubail (Jubail) 공장으로, 페르시아灣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제능력은 역시 하루 25만 배럴이다. 안부공장은 지난해 10월에, Jubail 공장은 금년 4월에 완공되어 시험가동을 마쳤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出荷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 내년 말경에 정제능력 하루 32만 5천배럴의 라비그 (Rabigh) 정유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쿠웨이트는 지난 83년 슈아이바 (Shuaiba) 정유공장을 완공한 것을 비롯, 86년에는 미나 압둘라 (Mina Abdullah), 미나 알-아마디 (Mina Al-Ahmadi)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쿠웨이트의 정제능력은 현재 하루 55만 배럴에서 75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다.

아랍에미레이트聯合 (U. A. E)의 경우도 아부다비 石油公社가 루와이스 (Ruwais)에 하루 17만배럴 규모의 정유공장을 87년 완공예정으로 건설중이며, 리비아도 라스 라누프 (Ras Lanuf)에 하루 22만 배럴 규모의 공장을 완공,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中東산유국들의 정제능력은 84년에 하루 530만 배럴이던 것이 87년까지는 하루 770만 배럴로 늘어날 것이며, 가동률을 80~90%로 가정할 경우, 內需를 제외한 石油製品의 수출능력은 하루 250~350만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中東산유국들의 이러한 정유시설확장은 2차 석유위기 이후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와 무리한 시설확장 때문에 야기된 石油製品의 공급과잉으로 인

해, 고용감축, 공장폐쇄, 가동률저하 등 침체를 면하고 있는 기존 世界石油業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태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에서 IEA 21개 회원국들은 石油製品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수급관계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데 신속한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IEA 각국이 石油製品의 수입자유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우려되고 있는 中東産 석유제품의 대량공급을 시장원리에 의해 각국에 공평히 배분시킴으로써 그 영향을 분산화 또는 최소화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가 완화됨으로써 석유제품무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IEA 회원국들이 石油製品 수입자유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게 된 것은 석유제품의 3대 소비국에 속하면서도 석유제품수입을 금지²⁾하고 있는 日本이 美國과 EC의 시장개방압력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EC는 中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수입규제가 없으므로 中東의 石油製品수출이 EC쪽으로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왔다. 따라서 EC는 3대 소비국인 美, 日, EC가 中東에서 수출되는 석유제

〈表 - 2〉 주요국의 精油社數 및 정제능력 추이

	1982		1983		1984		1985	
	精油社數	정제능력 (千B/D)	精油社數	정제능력 (千B/D)	精油社數	정제능력 (千B/D)	精油社數	정제능력 (千B/D)
北 美 (美 國)	350 (303)	23,359 (18,700)	283 (240)	26,109 (16,800)	262 (225)	19,006 (15,930)	238 (202)	18,538 (15,400)
南 美 유 럽	75 155	6,061 19,444	72 139	6,565 17,125	70 134	6,515 16,232	70 130	6,320 15,655
아 프 리 카	40	1,762	40	1,882	41	1,880	43	2,477
中 東 極 東	35 109	3,312 10,967	36 112	3,685 10,902	38 114	3,901 10,473	38 109	4,053 10,394
(日 本) 共 産 圏	(46) 102	(5,601) 16,533	(45) 102	(5,548) 16,873	(45) 103	(5,020) 17,200	(45) 103	(4,813) 17,500
總 計	866	81,438	787	77,141	762	75,207	731	74,906

〈資料〉 韓國石油開發公社, 「週刊石油뉴스」, 1985. 6. 20.

□ 海外石油市場 □

품을 공평 분담하여 수입하자고 주장하면서,³⁾ 日本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을 꾸준히 가해 왔다.

美國은 中東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고도로 정밀한 석유제품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외경쟁력이 매우 높으며, 石油製品貿易의 자유화를 통하여 오히려 得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美國은 石油製品貿易에 있어 완전한 수입자유화를 주장하여 왔다.

이에 반해 日本의 石油産業은 구조조정이 지연되어 비교적 낙후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자유화되면 값싼 외국제품의 유입으로 国内 石油産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에너지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안전보장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수입개방에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런데, 日本은 시장개방을 거부할 경우 美, EC와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개방하더라도 값싼 외국제품의 유입으로 국내 소비자의 이익은 증진되며 오히려 국내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끝에 마침내 이번 IEA회의에서 수입개방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수입금지를 채택하고 있는 日本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IEA 회원국은 석유제품의 수입자유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여타국에 대해서도 개방압력이 고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石油製品의 완전한 수입자유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회의가 끝나

고 발표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수입자유화의 구체적인 방법, 각국의 수입할당량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日本이 수입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通産省의 자문기관인 石油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石油製品의 수입은 빨라야 86년도 石油공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石油수출국들이 原油보다 石油製品의 수출을 선호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石油製品의 수입자유화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80년대 이후 나타난 石油製品무역의 증가추세는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80년대 들어 나타난 세계석유무역패턴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는 原油교역량이 점차 줄고 石油製品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原油교역량은 80년에 하루 2,555만 배럴에서 84년에 하루 1,874만 배럴로 17% 감소한 반면 石油製品 교역량은 같은 기간 중 하루 539만 배럴에서 602만 배럴로 12% 증가, 石油교역중 製品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4%로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① 石油수출국들의 정제시설확충으로 제품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② 石油製品가격의 하락으로 原油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것보다 製品수입이 더 유리해졌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石油製品의 수입자유화가 진전되면 石油製品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오는 87년 이후에는 石油製品교역이 전체 石油교역의 30%

〈表-3〉 세계 石油製品輸出 추이

(單位: 千B/D)

	1980	1981	1982	1983	1984	증 감 륜 (1984/1980, %)
中 南 美	2,045	2,035	1,690	1,415	1,520	-25.7
東 歐 圈	885	975	1,015	1,230	1,290	45.8
中 東	1,090	610	710	820	980	-10.1
東 南 아 시 아	355	375	415	330	505	42.2
美 國	270	370	580	575	540	100.0
北 아 프 리 카	185	185	270	335	415	124.3
世 界 全 体(A)	5,390	5,205	5,470	5,520	6,015	11.5
全 体 石 油 交 易 量(B)	31,935	28,655	25,565	24,355	24,750	-22.5
(A) / (B) (%)	16.9	18.2	21.3	22.7	24.3	

〈資料〉 Petroleum & Energy Intelligence Weekly Inc.,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July 1, 198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石油製品의 교역증가는 상대적으로 原油 수요를 감소시켜 原油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石油製品교역이 하루 100만배럴 증가하면 油價가 배럴당 4 달러 하락한다는 예측⁴⁾도 나오고 있다.

산유국의 석유제품 수출증대와 이에 따른 가격하락 전망 등으로 歐美 각국의 기업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영합리화 노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 석유산업이 추진하고 있는 경영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노후 정제시설의 폐쇄, 과잉설비의 감축, ② 제품수요의 輕質化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구조의 고도화, ③ 유통구조의 개선, ④ 고용감축 및 판매지역의 집중화 등을 들 수 있다.

美國의 경우 지난 4년간 109개 공장이 폐쇄되고, 하루 400만 배럴의 정제시설이 감축되었으며, 23,000명이 해고되었다. 日本도 石油審議會가 지난 81년말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 石油販賣會社(元売會社)의 시장점유율이 10% 이상 되도록 통제할을 단행, 81년 하루 594만 배럴이던 정제능력이 83년 말에 497만 배럴로 97만 배럴이 줄어들었다. EC각국의 경우, 80년 이후 현재까지 정제능

력의 30%가 삭감되었으며 오는 90년대에는 현재의 7억톤에 달하는 EC 전체의 年間精製 能力을 5억 5,000만 톤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石油製品의 수입자유화 추세나 石油製品교역의 확대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中東산유국과 교역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은 점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처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책으로서는 첫째, 국내 노후설비의 대체와, 수요의 輕質化추세에 대응한 시설고도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石油産業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둘째, 현재의 시장상황으로 보아 原油를 도입하는 것보다 정제된 製品을 수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中東國家와의 경제협력강화라는 측면에서 국내생산을 보완하는 정도의 제품수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최우선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

(産業研究院, 産業經濟情報 1985. 7. 24)

註: 1) 에너지부문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지난 74년 결성된 國際에너지機構는 OECD 24個國 중 프랑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3 개국을 제외한 2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註: 2) 日本의 경우 外國換 및 外國貿易管理法上 原油나 石油製品은 수입제한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石油業法에 의하면 石油수입은 通産省의 행정지도에 의해 사실상 마음대로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註: 3) EC는 中東으로부터 예상되는 石油製品 수출량을 年間 5,000만 톤으로 잡고, 이 중 EC가 2,500만 톤, 美·日이 각각 1,500만 톤씩 분담하여 수입하자고 주장하여 왔다.

註: 4) 美國 東西文化센터(East-West Center)의 계산에 의하면, 石油製品交易이 하루 100만 배럴 증가할 때 原油交易량이 그만큼 줄지 않으면 原油價가 장기적으로는 배럴당 4 달러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뿌린 정직

사회에서 꽃핀 신뢰